

'서틀콕에 더위 실어 날린다'

무주 반딧불배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 성료
450개팀 900여명 참가... 동호인들 실력 겨뤄

제11회 무주반딧불배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체육회(회장 송재호)가 주최하고 무주군배드민턴협회(회장 김병곤)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450개 팀 900여명의 선수와 가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6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의 이해양 의장과 안호영 국회의원의 윤정훈 도의원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는 무주군배드민턴협회 한두현 사무국장이 안호영 국회의원의 원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주)이퍼엔엘 차성중 대표가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단풍클럽 김성곤 회장과 무주클럽 위민석 회장이 전북배드민턴협회로부터, 그리고 무주군배드민턴협회 김미화 의전사와 정광분 운

영이사가 무주군배드민턴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3년여 만에 마스크를 벗고 몸도 마음도 가볍게 만난 대회에서 역동적인 라켓 스포츠의 진수를 보여주실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한다"라며 "가벼운 몸짓, 기운찬 스매시에 실은 여러분의 열정이 무주군에도 활력이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는 212개국 1억5,000만 태권도인들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회 개최지이자 훈련지"라며 "오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제27회 무주반딧불배에서도 꼭 뵙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무주 반딧불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는 동호인들이 실력을 겨루고 협력



제11회 무주반딧불배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참가 선수들의 꾸준한 참여율과 남다

른 기량이 전국 대회로서의 명성을 지키는 열쇠가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익산서 열린다

시,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협약
스포츠 명품 도시 이미지 강화

가족축제 배드민턴대회 개최
부부대항 등 총 142종목 구성

익산시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3년간 대규모 대회 개최협약을 맺고 배드민턴 메카 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

시는 지난 4일 익산시청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개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3년간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대학 일반)'의 익산 개최가 주요 내용이다.

시는 대규모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통한 체류형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배드민턴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 명품 도시로의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익산실내체육관에서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주최, 전북도배드민턴협



지난 4일 익산시청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개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회 및 익산시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한 '2023 전국가족축제 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6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가족 축제라는 대회명에 걸맞게 부부대항, 가족대항 및 80세, 100세, 110세, 120세 대항 총 142종목으로 구성, 전 연령의 가족 배드민턴 동호인

들이 전국에서 익산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 체육 발전과 배드민턴 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명품스포츠도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조규성, 덴마크 슈퍼리거
7월 '이달의 팀'에 선정

덴마크 프로축구 슈퍼리거에 진출한 조규성(미트윌란)이 7월 '이달의 팀(베스트11)'에 선정되며 유럽 무대 연착륙에 성공했다.

조규성은 6일(한국시간) 슈퍼리거가 사무국이 발표한 2023~2024시즌 리그 7월 이달의 팀에 공격수로 이름이 올랐다.

올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K리그 전북 현대를 떠나 새롭게 미트윌란 유니폼을 입은 조규성은 빠르게 적응하며 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개막전과 2라운드에서 연속으로 골을 터뜨리며 미트윌란의 2연승을 이끌었다. /뉴시스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김제시청 제공)

김제시, 도민체전·장애인체전 홈페이지 개설 대회 모든 정보 '한눈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와 제17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대 체전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해(<http://sports.gmj.go.kr>) 운영을 시작했다.

홈페이지에는 대회 소개와 개최식 공개행사, 성화봉송, 종목별 경기장 안내, 경기 결과 등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대회 종료 시까지 실시간 업데이트를 진행해 신속·정확하게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김제시를 방문하는 선수단 및 관람객들에게 숙박, 맛집, 관광지 등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는 다양한 모바일 해상도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접속하는 모바일 기기에 맞게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변환되

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양대 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대회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김제시 대표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전북도민 모두가 안전을 기반으로 하나가 되어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0년 만에 김제에서 열리는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는 '금빛 희망 전라북도! 함께하는 김제에서!' 라는 슬로건 아래 민속경기, 소프트테니스, 줄다리기 등 8개 종목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사전경기로 진행되고, 본 경기는 대회 첫날인 9월 1일부터 3일까지 김제시민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김제=곽도태 기자

한국 양궁 김파운드, 세계선수권 동메달 1개

여자 단체전만 동메달 획득

한국 양궁 김파운드 대표팀이 2023 베를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동메달 1개로 마감했다.

김종호(현대체철)는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대회 김파운드 남자 개인전 동메달결정전에서 마이클 슬로세르(네덜란드)에게 147-148로 패했다. 김파운드 종목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서 한국 김파운드 대표팀이 획득한 메달은 여자 단체전의 동메달이 유일하다. 오유현(전북도청), 소재원, 송윤수(이상 현대모비스)가 호흡을 맞췄다.

김파운드 대표팀은 2021년 양궁단체

회에서도 혼성전 동메달 1개만 목에 걸었다.

국제대회에서 최정상급으로 평가받는 리커브와 달리 기계식 활을 쓰는 김파운드는 고전하는 모습이 잦다.

대한양궁협회는 김파운드 종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리오 와일드(미국) 감독을 영입하기도 했다.

한편, 김파운드는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니지만 아시안게임에선 정식종목이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GUNSAN CULTURE NIGHT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문화제 야행

군산 문화제 야행

2023. **8.10** [목] ~ **8.12** [토]

18:00 ~ 22:00 | 군산대항 및 원도심 일원

주최

군산시

지원

문화재청

전라북도